

((())) 옴니플라 ((()))

새로운 지구와 상생을 위한 하늘(●)우주 천부경(天符經) 강의

—始無始—(일시무시일)

(풀이)

우주와 만물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생겨 나오지만 그 하나는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이고,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이름을 하나(一)라고 부른다.

(질문1)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은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일)은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내는 근원(根源)이자 궁극적 실재(實在)를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의 공(空) 또는一心(일심)과 유사한 개념이며,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道(도)나 無極(무극)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삼일신고의 天訓(천훈)에서 설명하는 하늘(天)은 천부경의 하나(一)와 동일한 개념이다. 또한, 서양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이것을 무한자(無限者) 또는 궁극적 균형(Equilibrium of Equilibriu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궁극적 실재의 절대 균형과 조화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은 사물의 크기나 순서를 나타내는 여러 숫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 실재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부호로 이해하여야 한다. 천부경에는 모두 11개의 —(일)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숫자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모여 하나가 된다는 합일(合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궁극적 실재를 상징하는 —(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일신고의 天訓(천훈)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하늘(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하늘(天)’은 우리민족이 생각한 궁극적 실재인 —(일)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낮에 보는 저 푸른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밤에 보이는 까마득한 허공 또한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상도 없고 드러난 속성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 아래와 사방도 없고, 비어 있어 아무 것도 없는 듯하나 어디 한 곳에도 없는 곳이 없으며, 그 품 안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없다.”

(질문 2) 궁극적 실재(實在)를 상징하는 —(일)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이 문장에서 —(일)은 궁극적 실재의 상징으로 숫자가 아니므로 —(일) 이전의 ‘0’ 과 같은 기준에 대한 개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디에서 생겨 났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서양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실재의 이전(以前)의 상태를 Great Void(대공허)부른다. Great Void(대공허)는 일반적으로 혼돈(Chaos) 또는 무질서(Disorder)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궁극적 실재를 생겨나게 만든 원인이나 주체가 아니다. 궁극적 실재는 우주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제1원인이자 질서(Order)의 시작이다.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지능(Intelligence)이며, 혼돈이나 무질서는 지능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돈이나 무질서가 우주와 만물의 온전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질서와 이후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내는 궁극적 실재는 혼돈이나 무질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없이 문득 또는 우연히 자연(自然)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문 3) (一)始無始(一)에서 始無始(시무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인 문장이나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주로 불교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이다. 불교에서 궁극적 실재 또는 근본 마음자리를 상징하는 용어가 空(공)이나 一心(일심)이다. 空(공)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두루 가득하다는 의미로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같이 섞여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장구조가 空(공)의 속성을 문자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글자를 동시에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一(일)의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一(일)은 그 안에서는 아무 것도 구별되지 않는 전체적 하나(一)이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나 우주와 만물이 모두 여기서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고 없음이 공존하는 절대적 균형 상태와 시작과 시작함이 없는 것이 공존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空(공)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 과학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빛의 입자적 속성과 파동적 속성이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빛(양자)은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입자로 인식되기도 하고 파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빛(양자)은 관찰자의 의도 없으면 입자와 파동이 어느 하나로 드러나지 않고 공존하다가 관찰자의 의도가 더해지면 비로서 입자나 파동의 속성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一(일)과 空(공)은 'A' 와 'not A' 의 집합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一始無始(일시무시일)과 一終無終(일종무종일)은 전체적 하나로써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구조로 '一(일)은 始無始(시무시)하고 終無終(종무종)하는 一(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궁극적 실재는 전체적 하나(一)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다.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 부분(部分)이며, 부분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전체(一)는 '바다' 라고 할 수 있고 '바다' 는 무한하며 시작과 끝이 없지만 바다에서 생겨난 '파도(만물)' 는 유한하며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一(일)은 천부경의 정수(精粹)이며, 81자의 숫자와 문자가 모두 一(일)에 녹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와 만물은 외부적으로는 각각 형상과 속성이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一(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상은 한 순간도 궁극적 실재인 一(일)을 떠난 적이 없지만 인간은 스스로 착각과 환영을 일으켜 자신의 본래의 형상과 속성을 망각하고 물질적 존재로 추락하였다. 이제 천부경의 가르침으로 전체적 하나인 一(일)을 회복하여 자신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착각과 환영이 만들어 내는 분리의식을 극복하고 태양보다 밝은 내면의 진면목을 바로 보라는 것이 천부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一析三極無盡本(일석삼극무진본)

(풀이)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실재인 一(일)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3) 가지 근본요소를 밖으로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실재는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 신성한 본성 또한 이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질문 1) 一析(일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주와 만물의 창조활동은 전체적으로 하나(一)인 궁극적 실재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형상과 속성을 가진 구체적인 존재로 구체화 되는 과정이다. 모든 창조물은 궁극적 실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 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최초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체적 하나(一)를 쪼개다는 용어인 析(석)을 사용한 것이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 과정은 위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아래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개별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아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위의 차원에 뿌리(원형, 유전인자, 핵, Frame)를 두고 있으며 아래 차원은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와 가지들로 볼 수 있다. 우주와 만물을 거꾸로 서있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생명나무(Tree of Life)라고 부른다. 동양 철학에서는 궁극적 실재인 一(일)이 우주와 만물로 쪼개어져 세분화하는 과정을 태극-음양=사상-팔괘-64괘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우주와 만물의 창조과정은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내부에 전체적 하나(Oneness)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쪼개어져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나온 모든 존재들은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궁극적 실재와 한 몸인 것이다.

(질문 2) 三極(삼극)은 무엇이며, 天地人(천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 민족은 一即三(일즉삼), 三即一(삼즉일)이라 표현하였고, 三極(삼극)의 三(삼)은 이러한 궁극적 실재의 속성에서 구체화되어 나온 것이다. 三極(삼극)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세(3) 가지 근본 요소가 세분화되고 구체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에너지적 요소, 질료적 요소, 의식적 요소를 말한다.

三極(삼극)은 이후 창조되는 우주와 만물의 구성요소가 되며, 그 단계에서의 에너지적 요소를 하늘(天)이라 부르고, 질료적 요소를 땅(地)이라 부르며, 의식적 요소를 사람(人)이라 부른다. 天地人(천지인)은 三極(삼극)이 진동수를 낮추어 다른 시공간 속에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낸 것으로 三極(삼극)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三極(삼극)과 天地人(천지인)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三極(삼극)과 天地人(천지인)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해해야 한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하늘(天)의 요소는,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게 하는 정보(神性)를 가진 에너지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이나 아버지, 또는 陽(양)이라는 개념만으로는 깊은 의미와 역할을 짐작하거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다. 정보를 가진 에너지는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나온 태초의 빛이다. 이 빛이 단계적으로 분화하여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세(3)가지 근본 요소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나온 빛은 여러 단계의 영적 세계의 태양들(Solar Hierarchy)를 거쳐서 물질세계의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지구의 인간과 생명체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의 하늘(天)은 눈에 보이는 태양과 그 이면에 있는 상위 태양들과 중앙 영(靈)태양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우주적 진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하늘(天)을 잃어 버리고 물질에 빠져 유한한 생명으로 전락한 것이다.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나온 태초의 빛은 가장 순수하고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태초의 빛은 자신의 빛을 세분화하고 진동수 낮추어 아래 차원으로 하강시켜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 가지 근본 요소중의 하나를 만들었다.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은 진동수가 낮고 탁한 빛으로 그림자를 만들며, 영적 세계로 올라갈수록 빛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순수해져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모든 곳에 편재하는 속성을 가진다. 사람을 포함한 생명의 진화는 마음(의식)과 몸에 저장된 빛의 진동수를 높이고 순수성을 향상시켜야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빠른 성장이나 진화를 위해서는 영적인 삶과 수행을 통하여 고차원의 높고 순수한 빛을 마음과 몸으로 내려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진동의 순수한 영적 빛을 성령(聖靈) 또는 지기(至氣)라고 부른다. 사람과 생명의 빠른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태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의식)과 몸으로 내려 받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궁극적 실재인 —(일)에서 나온 하늘(天)의 요소인 정보(神性)를 가진 에너지는 아래 차원의 세계와 만물 속으로 내려와서 그 세계와 만물이 살아 있게 하고 진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물질세계의 인간의 경우 정보(神性)를 가진 에너지는 궁극적 실재인 —(일)에서 나와 내면의 영적 계층(Cosmic Hierarchy)를 타고 내려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적 계층(Cosmic Hierarchy)은 영(靈)–혼(魂)–백(魄)–육체(Four Lower Bodies)이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땅(地)의 요소는, 궁극적 실재인 —(일)에서 나온 신성(神性)의 빛을 내려 받아 그 세계에서 형상과 속성을 가진 구체적인 모양으로 펼쳐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와 만물의 몸(공간)을 구성하는 질료(Cosmic Dust) 또는 근본 입자를 말한다. 정보(神性)를 가진 에너지인 빛이 자신을 여러 단계로 분화하여 아래 세계로 내려 오듯이 우주의 근본 질료도 분화하여 여러 층위의 우주(공간)와 다른 차원의 몸(공간)들을 만들어 낸다.

땅(地)의 요소는 하늘(天)의 요소에 담긴 정보(神性)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實現)하는 작용으로 땅(地)의 요소가 없으면 하늘(天)의 요소는 활동할 수 없고 잠재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땅(地)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天)을 알 수 없으며,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직접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어머니는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창(窓)이며 어머니가 열어준 창(窓)의 크기만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Four Lower Bodies)은 어머니의 역할이며 몸의 통로(窓)가 열린 만큼 하늘(天) 또는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몸은 에테르체(Etheric), 정신체(Mental), 감정체(Emotional)와 육체(Physical)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사람(人)의 요소는, 하늘(天)의 요소와 땅(地)의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창조와 운행의 변화를 인식하는 의식적(意識的) 요소를 말한다. 의식적 요소는 하늘(天)의 요소와 땅(地)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가지 근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의식의 바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의식의 내용은 하늘(天)의 요소와 땅(地)의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람(人)의 요소인 의식은 신의식(神意識)–영의식(靈意識)–혼의식(魂意識)–마음(人心)으로 분화하여 내려 왔다.

(질문 3) 無盡本(무진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궁극적 실재인 전체적 하나(一)에서 三極(삼극)이 세분화하고 구체화되어 나왔으나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는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한 속성은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나오는 창조물들은 궁극적 실재와 다른(낮은) 진동수를 가지며 점유하는 공간도 다르다.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하나(一)에서 나온 창조물은 바다에 의지하여 조건(원리와 법칙)이 갖추어 질 때 일시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파도는 일시적이고 무상(無常)하나 근원인 바다는 영원하고 항상(恒常)하는 실재(實在)이다. 스스로 파도를 고집하지 않으면 파도는 언제나 바다와 하나이다.

(질문 4)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또는 삼신(三神) 하느님 또는 창조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우주지성(Cosmic Intelligence) 또는 우주심(宇宙心)이라고 볼 수 있다.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을 단계적으로 창조하고 운영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우주의 활동하는 신성(神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일신고의 神訓(신훈)은 창조주의 출현과 권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천부경의 一析三極(일석삼극)에 대응되는 구절이라고 보아야 한다. 神訓(신훈)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의 뇌(腦)속에 내려와 있어 창조주를 만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신성(神性)을 깨달아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도해단군이 지은 念標文(염표문)에서 一神降衷(일신강충)하니 性通光明(성통광명)하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 만물의 중심(가슴)에

내려와 있는 신(神)의 삼중불꽃(Threefold Flame)의 근원(根源)이 바로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또는 삼신(三神) 하느님 또는 창조주를 상징하는 一析三極(일석삼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주와 인간의 구조와 원리는 천부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 내려와 있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 드리지 않는다면 굳이 어려운 천부경의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天—地—人—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

(풀이)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데 天—地—人—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은 창조활동의 첫 번째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창조활동의 첫 단계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에너지적 요소인 하늘(天)은 숫자 一(일), 첫 번째 질료적 요소인 땅(地)은 숫자 二(이), 첫 번째 의식적 요소인 사람(人)은 숫자 三(삼)을 붙여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天地人(천지인)를 서로 구분한다.

(질문 1) 천부경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 원리와 절차를 설명하는 방식은?

천부경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는 먼저 창조된 두 단계의 창조물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 지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胞胎)는 우주의 정수 또는 핵,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Frame)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것은 우주의 하늘(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養生)는 우주의 정수 또는 핵,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 움직이는 실물 우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며 이것은 우주의 땅(地)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다음의 창조활동은 우주의 정수 또는 핵,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Frame)와 실물 우주가 만들어 지고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하늘(天)과 땅(地)의 결합으로 상호작용이 일어 나면 사람(人)의 요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천부경은 우주 창조과정을 천(天)-지(地)-천지합일(人)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 2) 天地人(천지인)과 우주(宇宙)와의 관계는?

天地人(천지인)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분화를 반복하여 우주를 지탱하는 세(3) 개의 기둥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天地人(천지인)은 만물의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설계도의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우주 설계도를 구성하는 기둥은 하늘(天)의 기둥, 땅(地)의 기둥, 사람(人)의 기둥이다. 기둥은 위에서 아래로 네(4) 단계의 사다리 모양에 비유할 수 있다.

天—地—人—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은 네(4) 단계의 사다리 중에서 가장 위쪽 부분이 만들어 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우주 설계도의 세(3) 기둥의 가장 위쪽은 天(1)地(2)人(3)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우주 설계도가 만들어 진다는 문장이 다음 문장인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이다. 전체 우주 설계도의 모습은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이 된다. 여기서, 天(천)의 기둥은 天(1)-天(4)-天(7)-天(10)이고, 地(지)의 기둥은 地(2)-地(5)-地(8)-地(10)이고, 人(인)의 기둥은 人(3)-人(6)-人(9)-人(10)이다.

(질문 3) 天地人(천지인) 다음에 오는 一(일)을 무슨 의미인가?

天一地二人一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에서 天地人(천지인) 다음에 오는 一(일)은 우주 설계를 만드는 창조활동의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양생(養生)의 과정은 天二地二三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天地人(천지인) 다음에 二(이)를 붙여서 첫 번째 단계의 一(일)과 구분 하였다. 一(일)은 하늘(天), 아버지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二(이)는 땅(地), 어머니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여기서, 一(일)은 一(일)이 삼(삼)은 一(일)의 세(3)배가 아니라 一(일)이 세(3) 가지로 갈라져 세(3) 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숫자는 결국 전체적으로 一(일)이라는 뜻으로 궁극적 실재인 一(일)이 어떤 변화를 통하여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나더라도 결코 근원인 一(일)의 자녀로서 그의 품을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천부경의 핵심 메시지이다.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

(풀이)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胞胎)에서 전체 우주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 설명된 방식으로 만들어진 우주의 전체 설계도의 모습은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이 된다.

(질문 1) 이 문장의 一(일)과 一始無始(일시무시일)의 一(일)과의 차이는?

一始無始(일시무시일)의 一(일)은 전체적 하나(一)을 의미하는 궁극적 실재의 상징이고 이 문장에서 一(일)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一析三極(일석삼극)이 창조주로서 전체 우주 설계도 만들 때 사용한 우주를 구성하는 열(十) 개의 숫자중의 첫 번째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의 一(일)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열(十) 개의 숫자는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1 세대 자녀이다.

(질문 2) 一積十鉅(일적십거)에서 積(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 실재인 전체적 一(일)이 삼(삼)으로 갈라지는 것을 析三極(석삼극)의 원리(原理)라고 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창조과정에서 一析三極(일석삼극) 또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방식도 동일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一積十鉅(일적십거)에서 積(적)은 一(일)을 세(3)가지로 반복적으로 쪼개어 여러 개의 층으로 쌓는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一(일)을 삼(삼)으로 반복적으로 쪼개어 쌓은 모습을 평면적으로 표시하면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이 된다.

(질문 3) 無匱(무궤)의 의미는 무엇인가?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이 창조의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으로 우주와 만물의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두 번째 단계는 양생(養生)의 과정으로 설계도에 따라 형상을 가진 실물 우주와 만물을 만들기 위하여 몸(공간)을 입히는 과정이다.

우주와 만물의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은 동일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분화활동이라면, 설계도에 따라 몸(공간)을 입히는 과정은 네(4) 개의 층(차원)으로 구분하여 일어나므로 수직적 분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가 결합되어야 비로서 우주와 만물은 살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無匱(무궤)라고 한 것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가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아직 몸(공간)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匱(궤)는 몸(공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질문 4) 化三(화삼)은 무엇을 말하는가?

三(삼)은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 가지 근본요소로 그것은 에너지적 요소(天), 질료적 요소(地), 의식적 요소(人)입니다.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세(3) 가지 근본요소가 근원인 一(일)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것을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창조의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주와 만물의 설계도를 구성하는 열 개의 숫자로 상징되는 것들이 모두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化三(화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만물은 내면에 모두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을 지닌 궁극적 실재와 창조주의 분신이자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은 숫자로 말하면 모두 三(3)-六(6)-九(9)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계 창조활동으로 우주와 만물이 三(3=3x1, 1x3)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三(삼)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를 말합니다. 化三(화삼)은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에서 우주와 만물의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의 설계도가 완성된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창조활동은 양생(養生)의 과정으로 三(3)의 몸(공간)을 상징하는 六(6=3x2, 2x3)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창조활동에 대한 문장은 天二地二三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으로 시작합니다.

(질문 5) 一(일)에서 十(열)까지 열(拾)개의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천부경의 열 개의 숫자는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析三極(석삼극)의 원리에 따라 분화되어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게 되는 핵심 요소들을 상징한다. 동서양에서 우주와 만물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동양은 인간은 대우주와 동일한 형상과 속성을 가진 축소판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대우주를 Greater Man 또는 Macrocosmic Man이라고 부르고 인간은 Lesser Man 또는 Microcosmic Man이라고 한다.

열 개의 숫자는 대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열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서 살아 있는 실질적인 힘을 상징하고, 각 요소의 구성과 작용을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은 살아 있으며 진화할 수 있다. 인간의 형상은 크게 네(4)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머리, 가슴, 복부, 발로 구분하는데, 天(1)地(2)人(3)은 머리에 해당하고, 天(4)地(5)人(6)은 가슴에, 天(7)地(8)人(9)은 복부에, 天地人(10)은 발(Foot)에 해당된다.

인간의 경우, 열 개의 숫자는 상위 세계에 있는 자신의 영혼(靈魂)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통로(Center, Chakra)로 나타나 있으며, 이들 통로들이 온전히 열려야 자신의 영혼(靈魂)이나 궁극적 실재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天二地二三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

(풀이)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一析三極(일석삼극)은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에서 전체 우주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을 만드는 원리를 이전의 문장에서 설명하였다. 이번 문장에서는 창조의 두 번째 단계인 양생(養生)의 과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우주 설계도에 따라 살아 있는 존재의 몸(공간)을 입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형상을 가진 실물 우주와 만물 모습은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이 된다.

(질문 1) 天地人(천지인) 다음에 오는 二(이)는 무슨 의미인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一析三極(일석삼극)이 창조주로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에서 전체 우주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을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인 양생(養生)의 과정에서 우주 설계도에 따라 형상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의 몸(공간)을 입히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문장에서 二(이)는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창조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주와 만물의 설계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다음 ‘말씀’에 육신을 입혀서 살아 있는 영(靈)으로 만드는 창조를 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주와 만물이 두 단계의 창조활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질문 2) 天二地二人二(천이지이인이) 다음에 오는 三(삼)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단계의 창조활동을 설명하는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에서 化三(화삼)은 우주와 만물 속에서 활동할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의 설계도(三)’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우주와 만물의 설계도로서의 三(삼)은 우주와 만물 속에 있는 첫 번째 三(삼)으로 $3=3 \times 1$ 로 표현할 수 있고, 설계도는 우주와 만물의 원형, 유전인자, 핵, Frame을 의미한다. 天二地二人二(천이지이인이) 다음에 오는 三(삼)은 우주와 만물 속에서 활동할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의 설계도(三)’에 몸(공간)을 입혀서 형상을 가진 살아 있는 실물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天地人(천지인) 다음에 오는 二三(이삼)은 $6=3 \times 2$ 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실물 우주와 만물의 몸(공간)을 의미한다. 三(삼)은 하늘(天)과 설계도를 상징하는 수(數)이며, 六(육)은 땅(地)과 몸(공간)을 상징하는 수(數)라고 할 수 있다.

(질문 3) 天二三地二三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을 天一地一人一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와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의 사이(중간)에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치한 이유는?

天一地一人一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와 一積十鉅無匱化三(일적십거무궤화삼)는 창조주의 첫 번째 단계의 창조활동을 설명하는 문장이고, 天二三地二三人二三(천이삼지이삼인이삼)는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창조활동의 단계를 두 단계로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장의 위치를 첫 번째 창조활동을 설명하는 두 문장의 뒤에다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살아 있는 책이다. 자연의 변화를 잘 살피면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행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자연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먼저 유전인자(전체)를 조합하고 확정하는 수정(受精)의 단계인 포태(胞胎)의 과정이 있고, 수정란(受精卵)이 분화하여 온전한 몸을 만드는 단계인 양생(養生)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부경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원리와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하여 창조의 단계를 포태(胞胎)와 양생(養生)의 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창조단계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天一—地—二人—三(천일일지일이인일삼), 天二四地二五人二六(천이사지이오인이육), 天三七地三八人三九(천삼칠지삼팔인삼구)라고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天二地二三人二(천이삼지이삼인이삼)의 문장을 사용한 것은 二三(이삼)은 六(육, $6=3 \times 2$)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장인 大三合六(대삼합육)에서 六(육)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활동을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설계도(원형, 유전인자, 핵, Frame)를 만드는 포태(胞胎)의 과정은 하늘(天)의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형상을 가진 몸(공간)을 만드는 양생(養生)은 땅(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두 단계의 창조활동이 완료되면 하늘(天)과 땅(地)을 연결하고 순환하게 하는 사람(人)의 탄생과 역할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우, 설계도와 하늘(天)에 해당하는 것은 영혼(靈魂)이며, 숫자로는 三(삼, $3=3 \times 1$)이고, 몸은 땅(地)이며 숫자로는 六(육, $6=3 \times 2$)에 해당 합니다. 하늘(天)인 영혼(靈魂)과 땅(地)인 몸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세계(차원)에서 따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몸은 살아 있는 고기 덩어리(동물) 불과 합니다. 영혼(靈魂)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할 때 비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천부경은 하늘(天)의 형성과 작용, 땅(地)의 형성과 작용, 하늘(天)과 땅(地)이 만나 사람(人)이 출현하는 방식으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행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大三合六生七八九(대삼합육생칠팔구)

(풀이)

이 문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창조활동이 완료되어 탄생한 하늘(天)에 해당하는 설계도와 땅(地)에 해당하는 몸(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사람(人)의 탄생과 역할이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숫자 기준으로 보면 三(삼, $3=3 \times 1$)은 하늘(天)이며, 六(육, $6=3 \times 2$)은 땅(地)이며, 九(구, $9=3 \times 3$)은 사람(人)에 해당 합니다.

(질문 1) 大三(대삼)과 合六生七八九(합육생칠팔구)은 무엇을 말하는가?

大三(대삼)은 天一(천일), 地二(지이), 人三(인삼) 또는 天(1)地(2)人(3)을 말한다. 우주와 만물을 인간의 형상에 비유하면 天一(천일), 地二(지이), 人三(인삼)은 인간을 대표하는 머리(腦)에 해당하므로 大(대)는 우두머리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설계도와 형상(몸)을 가진 우주와 만물의 전체적 모습은 天(1)地(2)人(3) - 天(4)地(5)人(6) - 天(7)地(8)人(9) - 天地人(10)이 된다.

合六生七八九(합육생칠팔구)은 大三(대삼)인 天(1)地(2)人(3)에 숫자 六(육)을 더하여 天(7)地(8)人(9)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질문 2) 三(3) - 六(6) - 九(9)는 어떤 의미와 구조(構造)이며 시사점은 무엇인가?

천부경의 9 x 9 매트릭스에서 다섯(5) 번째 줄에 배치된 글자(9字)는 (三)大三合(六)生七八(九) ((삼)대삼합(육)생칠팔(구))이다. 가로와 세로의 다섯(5) 번째 줄은 서로 교차하여 십자가(十) 또는 卍(만)자 형성하는 두 개의 줄이고 그 중의 하나가 三(3) - 六(6) - 九(9)이다. 三(3) - 六(6) - 九(9)는 우주와 만물의 근본적 구조 또는 골격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3) 가지 숫자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온전한 존재이자 창조주의 분신 또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는 물질적 옷인 몸(六)에 매몰되어 본질인 三(삼)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하고 창조주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 버렸다. 오늘날 천부경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영원리를 명확하게 깨우쳐 잃어버린 본질인 신성(神性)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三(삼)은 인간의 영혼(靈魂)과 내면의 신성(神性)을 상징합니다. 천부경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영의 원리를 밝혀 인류로 하여금 三(삼)으로 상징되는 내면의 신성(神性)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실천적 덕목과 수행의 방법을 일러 주는 가르침이다.

運三四成環五七一(운삼사성환오칠일)

(풀이)

우주와 만물은 三(삼)과 四(사)의 원리(原理)로 원(圓)을 그리며 순환(循環)하면서 내면의 신성(神性)을 五(오)와 七(칠) 또는 七(칠)과 五(오)로 펼쳐내면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로 연결되어 돌아간다. 三(삼)과 四(사)의 운영(작용) 원리(原理)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만물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생명의 순환원리이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體(체)와 用(용)으로 서로 고리(環, 8)모양으로 연결되어 무한 순환한다.

살아 있는 우주와 만물의 전체적 형상은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이고, 여기서 영적 세계는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에 해당하고, 물질 세계는 天地人(10)에 해당한다. 삼일신고에서는 영적 세계를 天宮(천궁)이라 부르고, 물질 세계는 인간 세계(世界)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이 문장은 물질 세계인 天地人(10)의 창조와 운영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상호 순환 원리를 밝혀 주고 있다.

(질문 1) 三(삼)과 四(사)의 원리(原理)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一析三極(일석삼극)은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 나온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성(神性) 또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三位一體)는 一即三(일즉삼), 三即一(삼즉일)의 원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영을 수리적(數理的)으로 설명하는 원리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一即三(일즉삼) 또는 三即一(삼즉일)에서 두 숫자를 곱하면 三(3=1×3), 더하면 四(4=1+3)가 됩니다. 三(삼)은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 가지 기본요소를 상징하는 (주체)수리가 되고, 四(사)는 우주와 만물이 활동(작용)하는 네(4) 개의 세계(공간)를 상징하는 수리가 됩니다.

우주와 만물 속에 내재하는 중심(中心), 핵(核), 주체(主體)는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나온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의 반영이며 상속자로서 숫자로는 三(삼)이고, 三(삼)수(數)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중심(中心), 핵(核), 주체(主體)가 활동하는 세계는 네(4) 가지로 구분되어 활동(순환)하게 되는데 숫자로는 四(사)가 되며, 四(사)수(數)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살아 있는 우주와 만물의 전체 모습은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天地人(1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四(사)수(數) 원리가 적용되어 네(4)개의 그룹 또는 세계(차원)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세계는 天(1)地(2)人(3), 두 번째 세계는 天(4)地(5)人(6), 세 번째 세계는 天(7)地(8)人(9), 네 번째 세계는 天地人(10)이 됩니다.

(질문 2) 三(삼)과 四(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三(삼)은 활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세(3)가지 근본요소인 天地人(천지인)이고, 四(사)는 三(삼) 활동(작용)하는 공간인 세계(차원)를 말하고 天(천), 地(지), 人(인), 天地人(천지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네(4) 가지 세계(차원)를 관장하는 힘을 불교에서는 사대(四大)라고 불렀습니다.

天(천)은 불(火), 地(지)는 공기(風), 人(인)은 물(水), 天地人(천지인)은 흙(地)에 해당합니다.

사대(四大)의 힘을 관장하는 비물질적 존재를 우리민족은 사신(四神), 서양에서는 사원소(四元素)의 정령(Elementals)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삼(삼)으로 天地人(천지인)이며, 주체가 활동(작용)하는 몸(공간)이 살아 움직이게(순환) 하는 힘을 불(火), 공기(風), 물(水), 흙(地)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 삼(삼)은 가슴속에 내려와 있는 창조주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신성(神性)의 삼중불꽃(Threefold Flame)이고, 사(사)는 몸(Four Lower Bodies) 속에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 내고 삶의 일상 속에서 신성(神性)을 펼쳐내는 실질적인 힘은 불(火), 공기(風), 물(水), 흙(地)이다. 인간의 삶의 질(質)과 실질적인 영적 성장은 가슴속 신성(神性)의 삼중불꽃(Threefold Flame)과 내 안에서 작용하는 사원소의 힘인 불(火), 공기(風), 물(水), 흙(地)의 상호작용의 질(質)과 량(量)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질문 3) 運三四成環(운삼사성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삼(삼)과 사(사)의 작용 원리(原理)를 도형적으로 표현하면, 중심(中心)은 만물의 근원자리로 하나(●) 또는 一(일)이고, 一卽三(일즉삼)의 원리로 一(은) 잠재적 배경이 되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삼(삼)입니다. 중심인 점(●)을 둘러싸고 있는 원(圓)은 중심의 삼(삼)이 외부로 활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공간을 상징하고 4개의 사분면(四分面)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사분면은 중심의 삼(삼)의 작용(투영)으로 3등분 되어 외부의 원은 모두 12등분($12=3 \times 4$)이 됩니다.

삼(삼)과 사(사)의 작용 원리(原理)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내부 순환원리이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서로 고리(環, 8字)모양으로 연결되어 순환한다 것이 運三四成環(운삼사성환)의 의미이다. 천부경의 문장만으로는 천지인(10)에 해당하는 물질 세계의 창조 원리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서양의 카발라 전통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대우주의 축소판으로 하나의 숫자(10)에 대우주의 전체 형상이 수면(水面) 위에 비쳐진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우주가 거꾸로 서있는 생명나무(Tree of Life)라면 수면(水面) 위에 비친 물질 세계의 생명 나무는 똑바로 선 나무의 형상으로 서로 대칭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대우주가 크게 네(4) 개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듯이 물질 세계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네(4)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원리에 따라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구조 또한 네(4) 개의 몸을 가지고 네(4) 개의 세계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 세계의 몸(Four Lower Bodies)은 에테르체(Etheric), 정신체(Mental), 감정체(Emotional)와 육체(Physical)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 4) 五七一(오칠일) 또는 七五一(칠오일)의 의미와 차이는?

運三四成環(운삼사성환)로 만들어진 12 등분된 원(圓)의 순환은 五(오)와 七(칠)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圓)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의 불꽃이며, 세(3) 가닥의 신성(神性)의 불꽃이 원(圓)의 네(4) 개 사분면에 작용(투영)하여 펼쳐지게 되면 중심에 있는 세(3) 가지의 신성(神性)이 인간의 삶 속에서는 모두 12 가지 신성(神性)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순환하게 된다.

중심(●)에서 세(3) 가지로 구분되었던 신성(신성)이 12 가지로 세분화되어 펼쳐지는 통로를 에너지 센터(차크라)라고 부르고 에너지 센터는 모두 12 개이다. 그 중에서 7 개는 기본 에너지(Seven (Basic) Rays)가 작용하는 센터이고, 5 개는 영적 에너지(Five Secret Rays)가 작용하는 센터이다. 삶의 경험을 통한 영적 진화는 먼저 7 가지 기본 에너지를 경험하고 통달한 다음에 5 가지의 영적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12 가지 에너지를 모두 통달해야 온전히 한 주기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주 순환 원리에 근거한 순조로운 에너지 흐름은 $7+5=12$ 가 된다. 七五一(칠오일)은 먼저 7 을 통달한 후에 5 를 통달하여 12 를 온전하게 펼쳐낼 수 있으면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로 돌아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숫자의 순서는 7-5-1 이 순리(順理)이므로 숫자 7(七)이 5(五)보다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가 밝혀 주신 우주 만물의 순환 원리와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4 개의 신체는 에테르체, 정신체, 감정체, 육체이고, 각각의 신체가 성숙되는 기간은 먼저 7 수(數)의 원리가 적용되어 7 년이 소요되므로 4 개의 신체가 모두 완성되는데 필요한 기간은 $28(=4 \times 7)$ 년이 걸리고, 이후 5 수(數)의 원리가 적용되어 5 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성인(聖人)이 몸을 입고 환생하면 영적으로 완성(그리스도 의식 성취)되는 기간은 최소 $33(=28+5)$ 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다.

천부경(天符經)의 9X9 매트릭스를 9 감산법으로 표시하고, 부도지(符都誌) 23 장에 나오는 성수(性數), 법수(法數), 체수(體數) 중에서 체수(體數)인 3, 6, 9 에 해당하는 위치를 표시하면 우물 정(井)자 모양이 드러나는데 우물 정(井)자는 4 개의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고 십자가(十)의 중심은 모두 숫자 9 가 나타나는 자리인데 여기에 해당 하는 문자는 一(일), 四(사), 五(오), 鉅(거)이다. 성수(性數)는 1, 4, 7 인데, 기존 천부경(天符經)을 기준으로 보면 7(七)의 자리에 5(五)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五)와 7(七)의 자리를 바꾸면 십자가의 중심에 성수(性數) 3 개가 모두 배정되게 되므로 숫자 7(七)이 5(五)보다 앞에 오는 것이 더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일묘연만왕만래용변부동본)

(풀이)

궁극적 실재인 一(일)이 析三極(석삼극)의 원리(原理)로 분화하여 $1(一) \leftrightarrow 3(三) \leftrightarrow 7(七) \leftrightarrow 7(七) \leftrightarrow 12(七+五)$ 로 무수히 오고 가고 순환을 하여도 궁극적 실재인 一(일)은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 신성한 본성 또한 이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질문 1) 一妙衍萬往萬來(일묘연만왕만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一妙衍(일묘연)은 궁극적 실재인 一(일)이 미묘한 방법으로 펼쳐진다는 것으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행은 궁극적 실재와 창조주가 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萬往萬來(만왕만래)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된다는 의미이며, 두 개의 萬(만)자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간의 막힘 없는 순환과 교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글자이다. 영적 세계는 天(1)地(2)人(3)-天(4)地(5)人(6)-天(7)地(8)人(9)에 해당하고, 물질 세계는 天地人(10)에 해당한다.

(질문 2) 用變不動本(용변부동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간의 교류가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무수한 변화와 순환이 일어나더라도 궁극적 실재인 一(일)은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 신성한 본성 또한 이전과 조금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신성(神性)을 영적 세계를 거쳐 물질 세계에서 제대로 펼쳐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에 신성(神性)이 오고 가는 통로($12=7+5$)가 막히지 않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문장인 運三四成環五七一(운삼사성환오칠일)에서 五(오)와 七(칠)의 자리를 바꾸면 끊어졌던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간의 교류가 원만해져 궁극적 실재인 一(일)과도 하나로 연결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문장도 一妙衍萬往萬來(7)+用變不動本(5)(일묘연만왕만래(7)+용변부동본(5))의

구조가 12=7+5인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本心本太陽昴明(본심본태양앙명) 人中天地一(인증천지일)

(풀이)

우주와 만물의 근본 마음(本心)은 본래 근원 태양(本太陽)의 빛과 밝음(光明)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사람(人) 안에서 하늘(天)과 땅(地)이 하나(一)로 돌아간다. 인간의 마음(人心)이 본심(本心)과 하나로 연결되어 순환하면 인간의 마음도 근원의 빛으로 가득하여 내 안에서 하늘(天)과 땅(地)이 하나(一)되어 돌아가고 인간완성(人間完成)을 이룬다.

(질문 1) 본심(本心)의 의미와 본심(本心)과 인심(人心)의 관계는?

本心(본심)은 우주와 만물의 가장 근원적 마음자리라는 의미로 本心(본심)은 궁극적 실재의 상징인 一心(일심)의 작용적 측면이다. 마음(心)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 가지 근본요소 중에서 의식적 요소의 작용적 측면을 말한다. 마음(心)의 우주적 계층구조는 一心(일심)-本心(본심)-人心(인심)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의식적 관점에서 보면 신(神)의식-영(靈)의식-혼(魂)의식-인간의식(에고)으로 표현할 수 있고, 本心(본심)은 영(靈)의식과 혼(魂)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本心(본심)은 청정무구(淸淨無垢)하고 근원의 빛으로 가득하나 人心(인심)은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사로잡혀 本心(본심)과 연결이 약해지면서 본래의 광명(光明)을 잃어 버렸다. 인간의 마음이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시 本心(본심)과의 연결을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본성(本性)의 광명(光明)을 마음과 몸을 통하여 발산할 수 있다.

(질문 2) 本太陽(본태양)의 의미와 本太陽(본태양)과 물질태양(物質太陽)과의 관계는?

本太陽(본태양)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세(3) 가지 근본요소 중에서 에너지적 요소의 작용적 측면을 말한다. 태초의 빛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의 에너지적 요소의 작용으로 나온 것으로 우주와 만물에게 태초의 신성(神性)의 빛을 분배하는 시스템이 태양(太陽)이다.

本太陽(본태양)은 태양의 태양 또는 근원의 태양이라는 의미이다. 태양의 우주적 계층구조(Solar Hierarchy)는 궁극적 실재의 신성(神性)의 빛-本太陽(靈太陽)-아스트랄 태양-물질 태양이다. 지구에 존재 하는 모든 것은 물질태양에서 나온 것이며 물질태양은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의 생존과 진화를 책임지고 있다. 우주와 만물은 모두 세(3) 가지 근본요소인 에너지적 요소, 질료적 요소, 의식적 요소의 집합체로 지구와 물질태양도 당연히 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사람(人))에게 지구는 땅(地)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물질태양은 하늘(天)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태양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나온 신성(神性)의 빛을 지구로 전달하는 에테르적 통로이다. 지구는 물질태양을 통하여 전달 받은 신성(神性)의 빛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형하여 공급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질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지구가 중간에서 트랜스포머의 역할

을 거친 다음 생명체에게 전달된다. 우리는 반드시 지구를 통하여 태양 계층(Solar Hierarchy)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

(질문 3) 本心(본심)과 本太陽(본태양)의 관계는?

本心(본심)과 本太陽(본태양)의 관계에서 本太陽(본태양)은 하늘(天)과 아버지의 역할이고, 本心(본심)은 땅(地)과 어머니의 역할이다. 마음(心)은 태양을 통하여 들어 오는 신성(神性)의 빛을 담아 두고 또 펼쳐내는 에테르적 공간이다. 마음의 공간이 넓고 깊어야 태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신성(神性)의 빛을 더 많이 담아 두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사로 잡히면 마음의 공간은 극도로 좁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해 지면 태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더 많은 신성(神性)의 빛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중심(가슴)에 태양에 해당하는 신성(神性)의 삼중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마음(心)과 몸은 그 빛을 받아 저장하고 활용하는 그릇과 같은 에테르적 공간(그릇)이다.

(질문 4) 人中天地—(인중천지일)의 의미와 인간완성을 위한 수행과 실천 방안은?

궁극적 실재인 일(一)에서 최초로 나온 것이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또는 창조주이다. 우주와 만물은 모두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 또는 창조주의 분신 또는 자녀이다. 우주와 만물을 구성하는 삼위일체(三位一體)적 요소는 에너지적 요소인 하늘(天), 질료적 요소인 땅(地), 의식적 요소인 사람(人)이다.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하나(一)로 연결하고 소통하여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 실재인 一(일)로 돌아 가는 인간완성의 방법이다.

인간완성을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관점에서 합일(合一)해야 할 하늘(天)과 땅(地)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하늘(天)은 태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신성(神性)의 빛이며, 땅(地)은 나의 몸과 마음(人心)입니다. 몸(Four Lower Bodies)을 정화하여 막혀 있는 에너지 통로(센터)를 열고, 오욕(五慾)과 칠정(七情)에 사로잡힌 마음(人心)을 비우는 것이 땅(地)과 합일(合一)하는 것이고, 비워지고 정화된 마음과 몸으로 태양을 통하여 들어 오는 신성(神性)의 빛을 의식적으로 내려 받아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實現)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늘(天)과 땅(地)이 합일(合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상적인 수행이 깊어지면 나의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 지구와 우주로 확대되고, 태양 계층(Solar Hierarchy)을 따라 올라 가면서 더 고차원의 신성(神性)의 빛으로 마음과 몸을 가득하게 하여 가다 보면 마침내 本心(본심)과 本太陽(본태양)과 하나(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一終無終—(일종무종일)

(풀이)

우주와 만물은 궁극적 실재인 하나(一)에서 생겨 나오지만 그 하나는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이고,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이름을 하나(一)라고 부른다.

(질문1) 一(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은 숫자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일)은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내는 근원(根源)이자 궁극적 실재(實在)를 의미한다. 이것은 불교의 공(空) 또는一心(일심)과 유사한 개념이며,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道(도)나 無極(무극)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삼일신고의 天訓(천훈)에서 설명하는 하늘(天)은 천부경의 하나(一)와 동일한 개념이다. 또한, 서양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이것을 무한자(無限者) 또는 궁극적 균형(Equilibrium of Equilibriu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궁극적 실재의 절대 균형과 조화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은 사물의 크기나 순서를 나타내는 여러 숫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궁극적 실재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부호로 이해하여야 한다. 천부경에는 모두 11개의 —(일)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숫자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모여 하나가 된다는 합일(合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궁극적 실재를 상징하는 —(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일신고의 天訓(천훈)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하늘(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하늘(天)’은 우리민족이 생각한 궁극적 실재인 —(일)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낮에 보는 저 푸른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밤에 보이는 까마득한 허공 또한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상도 없고 드러난 속성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 아래와 사방도 없고, 비어 있어 아무 것도 없는 듯하나 어디 한 곳에도 없는 곳이 없으며, 그 품 안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이 없다.”

(질문 2) 궁극적 실재(實在)를 상징하는 —(일)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이 문장에서 —(일)은 궁극적 실재의 상징으로 숫자가 아니므로 —(일) 이전의 ‘0’과 같은 기준에 대한 개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디에서 생겨났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서양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만물의 근원이자 궁극적 실재의 이전(以前)의 상태를 Great Void(대공허)부른다. Great Void(대공허)는 일반적으로 혼돈(Chaos) 또는 무질서(Disorder)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궁극적 실재를 생겨나게 만든 원인이나 주체가 아니다. 궁극적 실재는 우주와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제1원인이자 질서(Order)의 시작이다.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지능(Intelligence)이며, 혼돈이나 무질서는 지능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돈이나 무질서가 우주와 만물의 온전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질서와 이후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내는 궁극적 실재는 혼돈이나 무질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 없이 문득 또는 우연히 자연(自然)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문 3) (一)終無終(一)에서 終無終(시무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표현은 일상적인 문장이나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주로 불교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장 구조이다. 불교에서 궁극적 실재 또는 근본 마음자리를 상징하는 용어가 공(空)이나一心(일심)이다. 공(空)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두루 가득하다는 의미로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같이 섞여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문장구조가 공(空)의 속성을 문자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글자를 동시에 묶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통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은 그 안에서는 아무 것도 구별되지 않는 전체적 하나(一)이기에 무엇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나 우주와 만물이 모두 여기서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고 없음이 공존하는 절대적 균형 상태와 시작과 시작함이 없는 것이 공존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공(空)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 과학계에서 서로 상반되는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빛의 입자적 속성과 파동적 속성이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빛(양자)은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입자로 인식되기도 하고 파동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빛(양자)은 관찰자의 의도 없으면 입자와 파동이 어느 하나로 드러나지 않고 공존하다가 관찰자의 의도가 더해지면 비로서 입자나 파동의 속성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一(일)과 空(공)은 'A' 와 'not A' 의 집합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一始無始(일시무시일)과 一終無終(일종무종일)은 전체적 하나로써 궁극적 실재인 一(일)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구조로 '一(일)은 始無始(시무시)하고 終無終(종무종)하는 一(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궁극적 실재는 전체적 하나(一)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다. 궁극적 실재인 一(일)에서 생겨난 것은 모두 부분(部分)이며, 부분은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전체(一)는 '바다' 라고 할 수 있고 '바다' 는 무한하며 시작과 끝이 없지만 바다에서 생겨난 '파도(만물)' 는 유한하며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一(일)은 천부경의 정수(精粹)이며, 81자의 숫자와 문자가 모두 一(일)에 녹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와 만물은 외부적으로는 각각 형상과 속성이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一(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상은 한 순간도 궁극적 실재인 一(일)을 떠난 적이 없지만 인간은 스스로 착각과 환영을 일으켜 자신의 본래의 형상과 속성을 망각하고 물질적 존재로 추락하였다. 이제 천부경의 가르침으로 전체적 하나인 一(일)을 회복하여 자신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착각과 환영이 만들어 내는 분리의식을 극복하고 태양보다 밝은 내면의 진면목을 바로 보라는 것이 천부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 옴니플라 ((()))

알기 쉬운 문답식 천부경 해석을 마치면서,

천부경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운행 원리와 계층구조이며, 사람과 우주 만물의 우주적 계층구조가 숫자로 표현하면 三(3)-六(6)-九(9)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三(3)이다. 三(삼)은 우주와 만물의 중심(근본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을 말하며 천부경의 표현으로는 一析三極(일식삼극)이다. 三(삼)은 곧 一(일)이고, 一(일)은 三(삼)으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三(삼)은 인간의 가슴속에 내려와 있는 삼위일체(三位一體) 신성(神性)을 말하며 이것은 삼중 불꽃(Threefold Flame)으로 화현(化現)한다. 이 불꽃은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 창조주로부터 물려 받은 신성한 정체성(正體性)이다. 도해단군이 지은 염표문(念標文)에서는 이것을 一神降衷(일신강중), 즉, 一神(일신)이 인간의 속마음(가슴)에 내려와 있고 이것이 性通光明(성통광명)의 씨앗(佛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명이 잉태되어 성장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포태(胞胎)-양생(養生)-욕대(浴大)-관왕(冠王)의 단계로 구분해 보면,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신(神)적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는 과정인 포태(胞胎)라고 할 수 있다. 포태(胞胎)는 인간이 신(神)의 자녀라는 징표인 가슴속에 내려와 있는 신성한 삼중 불꽃(Threefold Flame)을 마음 깊이 받아 드리고 오직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구세주를 찾고 형상의 가진 존재들에게 의존하는 마음이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서 신(神)의 종자(種子)를 심는 포태(胞胎)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매 순간 밖으로 구하려는 에고의 생존본능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천주(天主)를 모시고 모든 것을 내 안의 신성(神性)에게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바로 포태(胞胎)의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외부에서 진리를 찾아 다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教理)가 유일한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문(門)은 바로 나의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신성(神性)의 불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人生)을 고행(苦海)라고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고 있는 신성(神性)의 불꽃을 망각하고 외부적인 물질과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천부경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正體性)을 회복하고, 궁극적 실재와 창조주가 매 순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 깊이 받아드리고, 창조주의 분신 또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 가야 한다.

천부경에서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얻어 낼 수 없다면 구태여 어려운 천부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신성한 정체성(正體性)을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천부경 해석은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모든 경전은 참된 진리(眞理)로 인도해 주는 탈것(Vehicle)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 주고 주위에 현혹되어 결눈질하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를 향하여 질주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경전의 역할이다. 애매한 표현이나 복잡한 이론은 오히려 구도자로 하여금 목적지를 망각하게 하고 추진력을 약화 시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우주적 대전환기로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촌각이 아쉬운 이때 가르침의 골수를 바로 잡아 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옴니폴라 ((()))

환응천황

하늘(●)우주 天●符●經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

中	本	衍	運	三	三	一	盡	一
天	本	萬	三	大	天	三	本	始
地	心	往	四	三	二	一	天	無
一	本	萬	成	合	三	積	一	始
一	太	來	環	六	地	十	一	一
終	陽	用	七	生	二	鉅	地	析
無	昂	變	五	七	三	無	一	三
終	明	不	一	八	人	賈	二	極
一	人	動	妙	九	二	化	人	無

하늘 ● 사람 ● 땅 ● 세계